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 of Library Servic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금 준 규 (Jun-Kyu Keum)*

차 성 종 (Sung-Jong Cha)**

< 목 차 >

I. 서론	IV.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V.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제시
III.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내용 및 현황 분석	VI. 결론

요약: 본 연구는 국내외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및 도서관서비스 운영 현황과 도서관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 및 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로 제시된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은 1인 가구의 삶과 밀착된 정보자원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서비스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치구 도서관과 함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료 중심 도서관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1인 가구의 특성과 분포에 따른 권역별 특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활동지원, 사회적 유대, 돌봄, 봉사활동, 여가 및 문화활동 분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 중장년,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1인 가구, 사회다원화, 공공도서관, 도서관 서비스, 독서문화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uggest the library service direction and program provision metho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Seoul Public Librar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 of public services and library services for domestic and foreign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erception of library users and experts. As a result, the suggested library service directi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was proposed to secure and provide information resource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establish a support center in charge of services to utilize human resources efficiently with local libraries, and create a user-centered facility infrastructure including single-person households away from the material-oriented library, provide regional specifications and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addition, the reading culture program for single-person households believes that social activities support for vulnerable single-person households, social ties, care, volunteer work,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re more necessary than anything else, and proposed specialized library services and programs for young, middle-aged, and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KEYWORDS: Single-Person Household, Social Diversification, Public Library, Library Services, Reading Culture Program

* 도봉구립도서관 관장(kyu0105@hanmail.net / ISNI 0000 0005 0374 9305) (제1저자)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jcha@silla.ac.kr / ISNI 0000 0004 6426 6924)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1년 8월 28일 • 최초심사: 2021년 9월 2일 • 게재확정: 2021년 9월 2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335-368,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3.202109.33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9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5.5%(802만 6915명)를, 같은 해에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10.3%를 차지하였고,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0.2%를 차지하는 등 커다란 인구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 구조적 변화 중에서도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10가구 중 3가구(30.2%)를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이미 자리잡은 현상에 주목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1인 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30대(16.8%), 50대(16.3%), 60대(15.2%) 순서이고, 성별로는 여자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자는 30-50대에서 여자보다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0).

1인 가구의 급증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을 대신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등장과 함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영정, 2016). 젊은 세대의 달라진 결혼관에 따른 비혼·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별거의 증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 1인 가구 증가 등이 요인으로 제기되었다(국회도서관, 2018). 지역별 1인 가구의 비중도 서울(21.1%), 경기(21.0%), 부산(6.9%), 경남(6.4%)의 순으로 높아서(통계청, 2020),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집중된 대도시의 인구흡인 기제가 강력히 발휘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1인 가구 증가 현상, 특히 젊은 층의 증가세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정책이 부부와 자녀중심의 3-4인 가구로 짜여있고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는 관심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의 변화는 소비재, 주택산업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기업들은 이미 Solo Economy에 대응하여 소포장 식료품, 간편식, 소형가전, 소형주택, 실버산업 등을 발전시키고 공유경제와 구독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도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향정립을 모색해야 한다(국회도서관, 2018).

이제 우리 사회는 결혼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은퇴와 같은 인생 주기가 일정하게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일한 사회가 아니라 특정 연령대의 인구 과다, 다양한 국적, 소규모 인원의 가구 구성원이 각기 다른 인생 주기로 어우러진 사회로 다원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다원화의 여러 대상 중에서도 고령층과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이들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논의와 문헌 정보학계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도서관 이용자로서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와 정책,

대응방안이 연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를 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1인 가구에 적합한 도서관 서비스 방향 및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다원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사회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그림 1> 및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1인 가구 대상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1인 가구 대상 공공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의 도서관 서비스 방향 설정에 참고하였다.

둘째,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국내 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서비스 및 해외 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운영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국내·외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모범 사례 발굴을 통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제시 등에 적용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절차 및 연구설계

셋째,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계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실무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먼저,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1인 가구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와 만족도, 자료수집 요구와 정책에 대한 의견, 1인 가구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도서관내 사회다원화 서비스 담당사서, 문헌정보학 교수, 사회복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통해 도서관의 1인 가구 서비스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서울시 1인 가구 대상 공공도서관 서비스 방향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설계에 적절히 활용하였다.

넷째, 1인 가구 증가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살린 1인 가구 도서관 서비스와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다원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가족 구성의 다원화 요소

우리나라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은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여성 취업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이로 인해 가족 규모의 축소가 일반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김혜경, 2013).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해 세대구성이 단순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 증가, 한부모 가족의 급증, 재혼 가족의 증가,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족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했던 재생산, 돌봄, 복지, 가족 교육 등의 기능은 약화되고 결혼에 대한 선택적 또는 부정적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결혼의 연기나 포기, 이혼 증가 등 가족의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가정 양립 등 가족가치 확산, 다문화·한부모 등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의 한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이복실, 2011).

가족 규모의 축소가 단순히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구조, 주생활 및 주거환경, 식생활 영역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정부정책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주면서 국내 가족정책은 새로운 전환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에도 우리 사회의 가족은 결혼 연령의 상승, 독신자의 증가 등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다원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높아지면서 가족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학적, 가치관적 및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족 분야가 타 영역보다 빠르게 변하고, 다양화·다원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사회의 각 분야와 연계·협력을 통한 대응과 전략이 요구된다(이복실, 2011).

2. 1인 가구

우리나라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는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은 다양한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통계청 가구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은 가구에 대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라고 정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인 내국인 부부+자녀로 대표되는 4인 이상의 가족은 급속한 산업화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이주민의 국내 유입, 가족 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의 단순화로 다원화하여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크게 고령자, 다문화 가정, 1인 가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1인 가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명시하였고, 일반적으로는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취사와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동안 1인 가구는 ‘단독가구’, ‘독거가구’,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동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기 다른 개념을 가진다.

<표 1> 1인 가구의 세부적인 개념(변미리 외, 2019)

항목	정의
1인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독신 가구	-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스스로 가계를 운영하고 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남녀
단독 가구	- 1인 혹은 부부가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것 - 처녀, 혹은 총각 한명이 집에서 독립해 나와서 혼자 살면서 한 가구를 형성한 미혼 단독가구 - 노인 한분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 - 노인부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부부 단독가구 등이 있음

아래 <표 2>를 보면 전국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80년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 2019년 2.4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는 4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이었는데,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주된 유형이 되었다. 4인 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19년 16.2%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30.2%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최근 평균 가구원수 감소에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과 평균 가구원수(통계청, 2020)

구분	가구수 (천 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						평균 가구원수(명)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2015	19,111	27.2	26.1	21.5	18.8	4.9	1.5	2.5
2016	19,368	27.9	26.2	21.4	18.3	4.6	1.4	2.5
2017	19,674	28.6	26.7	21.2	17.7	4.5	1.3	2.5
2018	19,979	29.3	27.3	21.0	17.0	4.3	1.2	2.4
2019	20,343	30.2	27.8	20.7	16.2	3.9	1.0	2.4

국내 1인 가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박미선, 2017),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 골격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들 내에서도 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서 20대 청년, 50대 장년, 70대 이상 노인, 여성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편에 속한다(김석호, 2018). 이중에서 70대 노인층의 경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복지정책과 사회제도의 주요대상으로 각종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1인 가구 서비스를 설계 및 추진할 때 국가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1인 가구가 주된 가구형태가 된 이상,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취약한’ 1인 가구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공공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3. 선행연구

지금까지 1인 가구 대상의 도서관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인 가구 등 사회다원화 인구의 증가 현상, 1인 가구와 같은 사회다원화 이용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운영 방향 등을 다룬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셋별(2014)은 오늘날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사회 변화 중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령화 뿐 아니라 청년층의 독신 증가, 중년층의 이혼율 증가와 관계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는 다인 가구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다인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도가 낮게 나타난 점과 1인 가구 내에서도 집단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활동 양극화 현상이 1인 가구 내에서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민홍 외(2015)는 한국 1인 가구의 사회적 위험요인을 국내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한국 1인 가구가 처한 보편적인 위험요인은 건강문제와 주거문제였으며, 다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1인 가구가 더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청년층은 미취업, 건강, 주거환경이, 40~50대 중년층은 가족해체, 비경제활동, 정신건강 저하가, 60대 이상 노년층은 빈곤, 건강, 안전사고가 위험요인으로 제기되었고, 사회적 위험요인의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1인 가구 사회보장정책의 병렬적 연결로 1인 가구가 처한 복수의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연옥(2016)은 1인 가구 시대의 도래에 앞서 이들의 특성과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1인 가구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거시적 지향점을 연구하였다. 1인 가구의 출현여건 형성 요인을 개인의 부상, 정보통신 혁명, 여성지위 신장, 신자유주의 경제이념의 확산 등으로 도출하였고, 1인 가구 증가로는 만혼, 비혼의 확산, 이혼의 증가, 평균수명의 확장과 같은 인구학적 변동을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았으며 1인 가구의 특성을 빈곤화, 여성화, 노령화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도래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4인 가족 중심의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유경(2016)은 우리 사회의 다원화 현상과 관련하여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라고 분석하고, 소가족화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가족원 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화 현상,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에서 비롯된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부양가치관이 변하고 가족부양 환경이 악화되어 지금까지 전통적 가족주의에 근거한 가족구성의 부양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하면서 가족부양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가족의 차별적 욕구를 반영한 노인돌봄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경순, 남명옥, 이서희(2019)는 한국어 가족어휘를 통한 가족관의 변화 연구를 통해 현대의 가족은 경계가 완화되면서 다문화가족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와 1·2인 가족의 구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또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할 것임을 예상하고, 오늘날 가족이라는 의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시기를 예비하는 중이라 강조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정보학 전공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사회다원화 이용자 중 특히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현황 및 국내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운영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하고,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와 정책방향, 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Ⅲ.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내용 및 현황 분석

1. 서울시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특정 취약계층을 지정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세대 단위, 가족 중심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가운데, 1인 가구 관련 내용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1인 가구를 위한 별도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정부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성남시 등이 2000년대 후반부터 1인 가구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별로 정책을 마련하였다.

지원체계는 중앙정부가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구체적 사업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련기관, 민간기업, 사회적기업,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많았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서울시는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을 목표로,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3개 추진목표와 17개 추진과제로 구성되고 서울시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는 각 자치구와 더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강센터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지원요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인 가족사업기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2015년을 시작으로 건강센터별로 1인 가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 <표 3>은 25개 자치구 중에 13곳의 건강센터가 2018년도에 실시한 1인 가구 프로그램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건가센터의 2018년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8)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1인 가구)	프로그램 내용				
			생활역량 교육	심리검사 및 상담	돌봄 나눔	여가 문화	지역 연계
강남구	청년1인 가구사업 '식구'	20-30대 청년	○	○	-	-	-
	1인 가구 YOLO 놀러와요 우쿨레탈라	20-30대 청년	○	-	-	○	-
관악구	1인 가구 탐구생활	20-30세대	-	-	-	○	-
광진구	꿈꾸는 싱글라이프	20-30대 청년	○	○	-	-	-
금천구	4050! 브라보 꽃중년	중년	○	-	-	-	-
도봉구	통합프로그램-자기방어훈련(호신술)	여성	○	-	-	-	-
	1인 가구소모임활동지원	30대 여성		-	-	○	-
동대문구	나도혼자산다	20-40대 미혼남녀	○	○	○	○	-
서대문구	동고동락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구축사업	40-50대	○	-	○	○	-
서초구	서리풀 싱글싱글 문화교실	청장년	○	-	○	○	-
성북구	다가치행복청년봉사단	20-30대	-	-	○	-	-
	싱글끼리 모임을 지원해요	20-30세대 직장인	-	-	-	○	-
양천구	여행(여성들의 행복한라이프)	여성	○	-	-	-	-
은평구	창바지 in day	40-50대	○	-	-	○	-
종로구	Single한 삶, 병글하게	20-30대 청년	○	○	-	-	-
중랑구	낭랑한 1인 생활	20-30대 청년	○	○	-	○	-

위 〈표 3〉에서 보듯이 프로그램 대상은 주로 20-30대 청년, 40-50대 장년층으로 20-30대 프로그램은 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에서, 40-50대 프로그램은 금천구, 서대문구, 서초구, 은평구에서 시행하였다. 동대문구와 서초구는 20-40대 또는 청장년층으로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였고, 도봉구, 양천구는 연령 제한없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주제는 의식주, 재무관리 등 일상생활 역량강화에 집중되었고, 취미나 여가, 동아리 활동이 많았고 자원봉사나 재능나눔 등 돌봄과 나눔사업, 심리검사도 일부 시행하였으나 타기관 협력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건가센터 외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경로에는 생활권역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학의 집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 기초문화재단이 있다. 이 외에도 서울에는 2,622개(2017년 기준)의 공공 체육시설이 각 자치구별로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인 간이 운동장이 가장 많으며 축구장과 수영장, 생활체육관 등은 25개 자치구에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신청으로 운영하고 활동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모집 대상하는 경우는 있으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화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내에서 운영된 1인 가구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서 '2018 서울 가족특성화 연구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1차 문헌 조사를 진행한 후, 2차로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교육, 문화, 기타로 구분·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교육 서비스

교육서비스는 정신건강보건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소 등에서 고령 1인 가구, 남성 1인 가구와 같은 대상 맞춤형으로 정신과 신체건강, 심리검사, 주거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4〉 시설별 1인 가구 교육 프로그램 내용

기관명	프로그램명	내용	횟수
서울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꾸물거림&무기력 탈출	개인별 MBTI검사를 바탕으로 Art work, 마음자세 카드를 통한 강약점 찾기	5회
서울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결식예방 프로젝트 '집밥을 부탁해'	실제 요리 교육으로 남성1인 가구를 방문해 집밥 레시피 교육	3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보건지소	나비남 YOLO프로그램	개인별 건강상태 조사 실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운동·영양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육	7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진짜, 집주인되자	세입자로 살기, 내손으로 하는 집수리, 미세먼지 안녕~가전제품 주인되기 등 교육	3회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	뇌청춘교실	뇌운동 치매교재와 인지향상 훈련기기를 통해 현실인식훈련, 단어연상, 숫자기억, 운동·음악치료	8주

나. 문화 서비스

문화서비스는 시청, 장애인복지관,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에서 어르신과 남성 장애인, 청년, 여성과 같은 특정 계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횟수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설별 1인 가구 문화 프로그램 내용

기관명	프로그램명	내용	횟수
서울시청	1인 가구사진관	1인 가구인의 애장품, 반려동물 등과 함께 무료로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프로젝트	-
서울시 생활종합지원센터	주말엔 반찬을 만들자	건강하고 맛난 집반찬을 함께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1회
서울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콧이지롱	1인 가구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반찬과 아침식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8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삶, 주거, 예술	삶: 청년정책, 노동법, 사회적 경제 등 주거: 집수리 워크숍, 협동주택, 혼밥, 반찬, 목공 자립: 면생리대, 바른생활재, 손바느질, 커피, 막걸리 예술: 연극, 음악, 축제, 팟캐스트, 예술가 네트워크	4회

다. 기타 서비스

기타로는 식생활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30대 1인 가구와 혼밥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심리상담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6〉 시설별 1인 가구 상담 프로그램 내용

기관명	프로그램명	내용	횟수
서울시 식생활지원센터	주말엔 반찬을 만들자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 만들면서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5회
서울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030 마음지킴이	전문 심리상담사와 일대일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	6회

이 외에도 시니어 희망공동체, 구청 등에서 청년과 고령층, 40대 이상 남성, 장애인 1인 가구처럼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족 만들기, 고독사 예방, 월동준비, 노인 돌보미 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보다 앞서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를 수행한 다른 공공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현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의 경우 건가센터에서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를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주로 20-30대 청년층이나 40-50대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특정 연령대 프로그램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기존 서비스를 교육, 문화, 기타로 구분은 하였으나 실제로는 생활 일반, 취미, 교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정부의 1인 가구 정책과 서비스가 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청년층부터 고령층, 여성과 남성에게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1인 가구 서비스 대상 확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한 다양한 상황의 1인 가구들에게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검토해야 한다.

2. 국내 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서비스

국내 도서관에서 1인 가구 대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1인 가구 구성원이 대부분 성인에 해당하므로 ‘성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한국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따라 학력보완, 문해교육,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로 구분하였다. 실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지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서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한 성인 프로그램을 분류체계에 따라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문해교육 6개, 직업능력 19개, 인문교양 134개, 문화예술 11개로 총 170개 프로그램 중에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79%를 차지하였다. 〈꿈꾸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책읽기〉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었고 대부분은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7〉 서울도서관의 성인 대상 유형별 프로그램 현황(서울도서관, 2020)

유형	프로그램명	개수(%)
학력보완 프로그램	-	-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국수어입문교육, 수어교육 외	6(3.5)
직업능력 프로그램	2016-2017 서울책방학교, 영상번역가 외	19(11)
인문교양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목요대중강좌, 퇴근길인문학, 오늘 만나는 동양고전, 문학기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 꿈꾸는 어르신의 행복한 책 읽기, 기자와 요리사의 눈으로 바라본 유럽의 맛, 정여울의 읽기와 쓰기,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읽기, 나를 돌보는 시간 그림책 테라피 외	134(79)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시 듣는 클래식, 꿈과 희망을 하늘로 전시연계강연, 서양 고전 음악의 거장들, 월북 미술인들의 삶과 예술, 다시 듣는 클래식 외	11(6.5)
시민참여 프로그램	-	-
소계		170(100)

추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 우수 사례집 등의 자료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한 성인 프로그램 중에서 1인 가구 중심의 가구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설계되어 1인 가구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조사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분류되는 내용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청년층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도 많고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높지 않지만 일부 도서관에서 이들의 적극성, 활동성과 독립성을 반영한 인문교양 강좌, 홍보서포터즈, 동아리, 재능기부, 개인 및 단체용 공간 대여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도서관 이용률도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인생설계, 경력개발, 금융교육 등 실용강좌와 자연에게 배우는 인생문답, 나이들의 즐거움, 내 인생의 자서전, 영화로 사는 인생이야기 등 인문교양 강좌, 구글과 에버노트 활용법, 문화유산 해설사 등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취업관련 강좌 등을 운영하여 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층은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계속 증가하는 계층으로 이들을 위해 치매예방 독서토론, 두뇌건강 독서치료, 인지활동 책놀이, 인지건강 실천법 등 건강관련 강좌와 꿈꾸는 노년 행복한 책읽기, 은빛손길로 써내려간 나의 이야기, 책으로 자라는 푸른 나이에, 옛이야기 전래놀이, 시니어 도서관인문학 등 인문교양 강좌와 성인 문해교육, 시니어기자단 등의 취미교양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세대별 구분 외에 추가로 전 연령대에서 도서관 방문과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고 현재도 도서관 이용자의 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상황의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국내 공공도서관이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논의와 서비스를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개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대상 서비스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 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서비스

1인 가구 증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도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 31%에서 2017년 3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일본은 35%, 스웨덴은 50%에 이른다(정순희, 2019). 1인 가구가 급증한 일본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했지만 1인 가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별도의 대책 없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도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회구조적 변화이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해외 국가의 도서관들도 노인, 다문화가정, 소외청소년 등 사회다원화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중심의 가구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설계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계가 함께 1인 가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해외 주요 국가의 독서문화 진흥정책과 서비스 내용을 살펴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본다.

먼저, 미국은 51개 주마다 독립적인 도서관 및 독서교육정책이 있고 독서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은 크게 학교와 도서관이다. 학교는 주로 학생의 문해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포함한 시민의 독서문화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고, 프로그램은 <표 8>과 같다.

<표 8> 미국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김은하, 이태문, 2015)

구분	내용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메이커스페이스, 타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교육, 성인을 위한 여름독서 프로그램, 고졸 학력인증 코스, 기초 문해교육
경제 및 취업 프로그램	공동작업공간 인큐베이터, 창업 및 소규모 사업계획 가이드, 온라인 비즈니스 정보자료의 이용법, 온라인 지원서 작성법
컴퓨터 기술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용, 화상회의 이용, 온라인서비스 접근과 이용, 기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용, 보안과 안전교육, 디지털콘텐츠 개발

영국은 다양한 공적기관과 기업, 시민사회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 도서관 및 독서정책을 시행하고

1인 가구 대상 서비스보다는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과 환경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9> 영국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김은하, 이태문, 2015)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책은 내 가방 (Books Are My Bag, BAMB)	책읽는 모습, 서점 앞에 선 모습 등을 찍어 SNS로 알림. 독립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축제, 저자와의만남, 공연 등을 개최
리딩웰 (Reading Well)	정신건강 환자와 가족,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책을 선정하고 처방하거나 목록을 도서관에 빌려 읽음. 우울증, 만성통증,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도서목록 제작
모두를 위한 독서 동아리 (Reading Group for everyone)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검색과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독서동아리를 활성화, 독서동아리 축제나 경품 행사 진행

핀란드는 도서관의 나라라고 할 만큼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세계적이며 인구의 90%가 도서관 회원이다. 독서정책은 도서관과 학교 등 공적기관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도서관을 ‘학습하는 시민사회’의 중심기관으로 여기므로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모든 대학도서관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도서관 시설, 사서, 자료에 대한 투자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표 10> 핀란드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김은하, 이태문, 2015)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학습동아리 지원 (Study circle)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주제의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등록하면 관련자료 구입비를 지원, 학습동아리 리더양성, 교재·교육과정 제공, 지역의 다양한 자원안내
도서관을 위해 자전거를	사서들과 시민들이 도서관대회나 컨퍼런스 등에서 특별행사로 자전거로 달리며 캠페인 진행

미국, 영국, 핀란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도서관정책과 서비스에서 살펴보았듯이 1인 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확인되지 않고 전체 시민 대상의 보편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도서관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도서관 서비스의 보편성과 차별성을 염두에 두면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참고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 서비스의 본질은 생애주기별 평생독서가 가능한 도서관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도서관 프로그램의 중심에도 책읽기 즉, ‘독서’가 있고 개인의 평생학습의 핵심은 독서활동이므로 책 읽기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독서동아리, 주민 커뮤니티와 같은 그룹 또는 단체 활동을 제공하여 1인 가구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자매체 활용과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정보 및 활용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 공공

도서관 사서들이 온라인 지원서 작성법, 취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용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가 직면하는 실업과 이직, 비정규직같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IV.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 이용자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절차 및 방법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와 만족도 등의 인식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 등 정보소외계층 관련 선행연구 및 위 2장에서 살펴본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서비스 운영 방향 등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관련 사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 문항으로 작성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고, 문헌정보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학계의 각 연구자 3명, 도서관 실무 현장 전문가 3명의 검토를 받아 내용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설문 항목은 '공공도서관 이용형태',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향후 도서관 자료 수집에 대한 요구 및 정책 의견', '도서관 운영방향 및 1인 가구 서비스에 대한 정책의견', '일반사항' 등 5개 영역, 3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1인 가구 등 사회다원화 이용자 전체로 하였다.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12일간 서울시 소재의 공공도서관 10곳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방식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오프라인 조사방식 2가지를 각각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106명이 응답하였으며,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의 이용자 그룹에 해당하거나 누락 및 응답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총 35명의 이용자 설문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이용자 설문조사를 수행한 기간이 코로나 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와 대면 접촉 또는 심층면접 등이 쉽지 않았던 점과 설문조사 기간이 제한되어 보다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 등은 본 연구에서의 이용자 설문조사의 한계라 할 수 있겠다.

나. 응답자 특성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5명으로 남성 16명(45.7%), 여성 19명(54.3%)으로 여성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로 구분되고, 30대(34.3%), 40대(37.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와 50대는 14.3%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1인 가구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분석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6	45.7
	여성	19	54.3
연령	20대	5	14.3
	30대	12	34.3
	40대	13	37.1
	50대	5	14.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	20.0
	대학교 졸업	28	80.0
경제활동 상태	경제활동 중	35	100.0
직업	주부	1	2.9
	일반 사무직	16	45.7
	생산·판매·서비스직	13	37.1
	자영업	3	8.6
	전문직	2	5.7
합계		35	100.0

다.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

최근 1년 동안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1인 가구 이용자 중 26명(74.3%)이 '이용했다'고 응답한 반면 '이용하지 않았다'는 9명(25.7%)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순위는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음'으로 9명(100%)이 응답하였고, 2순위는 '도서관까지 먼 거리' 3명(33.3%),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명(22.2%),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1명(11.1%) 순으로 각각 응답하였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표 12〉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항목		빈도(명)	비율(%)
1순위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음	9	100
	합계	9	100
2순위	도서관까지 먼 거리	3	33.3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	22.2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음	1	11.1
	합계	6	66.7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이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 1인 가구 응답자 중 23명(67.6%)이 '도서 대출 및 독서를 위해'라고 하였다. '문화강좌 및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PC를 사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명(8.8%)으로 나타났고 2명(5.9%)의 응답자만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3〉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항목	빈도(명)	비율(%)
도서 대출 및 독서를 위해	23	65.7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2	5.7
문화강좌,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3	8.5
본인(또는 자녀)교육을 위해	1	2.9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위해	1	2.9
PC를 사용하기 위해	3	8.5
지역모임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해	1	2.9
시간을 보내기 위해	1	2.9
합계	35	100

라.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1인 가구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회원증, 좌석발급 등 이용절차가 간편'과 '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검색이 편리' 등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이 4.1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표 14〉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항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자료	책, 잡지 등 인쇄자료가 충분	35	3.7	0.8
	CD, DVD 등 비도서 자료가 충분	35	3.3	0.7
	전자책, 오디오북 등 전자자료 충분	35	3.4	1.0
	최신 자료가 신속하게 제공	35	3.6	0.8
도서관 이용	회원증, 좌석발급 등 이용절차가 간편	35	4.1	0.8
	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검색이 편리	35	4.1	0.8
	대출권수·기간·연체처리 등 이용규정이 적절	35	3.8	0.8
접근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전자자료 이용이 편리	35	3.8	0.7
직원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35	3.7	0.9
	도서관 직원의 친절도	35	3.7	0.9

1인 가구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환경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도서관 이용시간은 적절하다'의 평균이 4.2점,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가동이 적절하다'는 항목의 평균이 4.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1인 가구 이용자의 공공도서관 제공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정도 질문에 아래 〈표 16〉과 같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8명(80.0%), 7명(20.0%)은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1인 가구 이용자의 관심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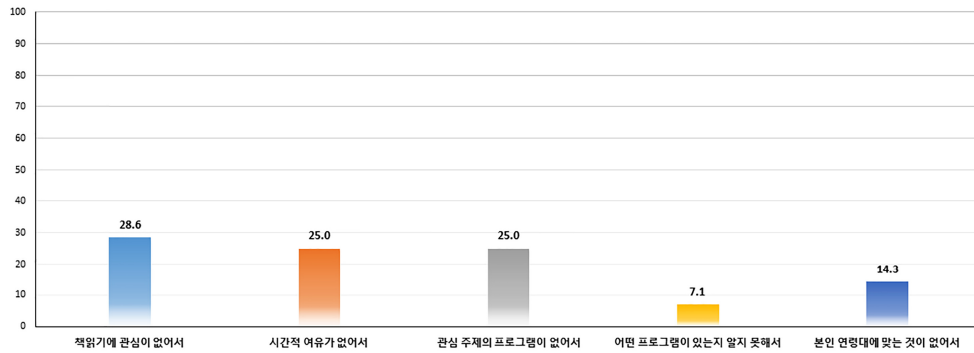
〈표 15〉 공공도서관 환경 및 시설의 만족도

항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접근성	도서관에 오기가 편하다 (교통편)	35	4.0	0.7
	도서관 이용시간이 적정하다	35	4.2	0.7
시설 환경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 제공된다	35	3.9	0.7
	자료실 및 열람실이 청결하게 관리된다	35	3.9	0.8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가동이 적절하다	35	4.1	0.8
	조명 밝기가 적절하다	35	3.8	1.0
	책을 열람하기 위한 공간이 적절하다	35	3.6	0.9
	카페, 안내시설, 위생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35	3.5	0.9

〈표 16〉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용 정도

항목	빈도(명)	비율(%)
이용해본 적이 없음	12	34.3
거의 이용하지 않음	16	45.7
가끔 이용함	7	20.0
자주 이용함	-	-
합계	35	100.0

1인 가구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래 〈그림 2〉와 같이 ‘책읽기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8명(28.6%),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관심 주제의 프로그램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7명(25.0%)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공공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인 가구 이용자가 경험한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 항목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프로그램에 이용자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다’ 항목은 평균 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17>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항목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7	3.9	0.7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이 충실하다.	7	4.0	0.6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	7	4.1	0.9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7	4.0	0.8
프로그램에 이용자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 있다.	7	3.6	1.0
다른 기관과 차별화되어 있다.	7	3.7	0.5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고 전문적이다.	7	4.0	0.6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1순위는 15명이 '평생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42.9%)'을, 2순위로 9명이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25.7%)'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8>과 같이 나타났다.

<표 18>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중요 고려 요인

항목	빈도(명) / 비율(%)	
	1순위	2순위
평생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15 / 42.9	4 / 11.4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10 / 28.6	9 / 25.7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2 / 5.7	6 / 17.1
지역사회 교류 및 모임참가를 위한 프로그램	3 / 8.6	3 / 8.6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지원 프로그램	2 / 5.7	5 / 14.3
정보검색 및 정보이용 프로그램	3 / 8.6	5 / 14.3
건강상담 및 생활복지 지원 프로그램	-	2 / 5.7
합계	35 / 100.0	35 / 100.0

마. 향후 도서관 자료 수집에 대한 요구 및 정책 의견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1인 가구 이용자를 위한 도서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14명(40.0%)이 '이용자 연령/계층별 맞춤형 장서 증대'로 응답하였고, 9명(25.7%)의 응답자가 신간 도서 구입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오직 1명(2.9%)만이 파손도서를 신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인 가구 이용자들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장서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연령과 계층에 맞는 맞춤형 장서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19>와 같이 나타났다.

〈표 19〉 공공도서관이 1인 가구를 위한 도서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인

항목	빈도(명)	비율(%)
신간도서 구입량 증가	9	25.7
이용자 연령 / 계층별 맞춤형 장서 증대	14	40.0
베스트셀러 복본 구비	4	11.4
전자책 구입량 증가	7	20.0
과손도서 신속 교체	1	2.9
합계	35	100.0

바. 향후 도서관 운영방향 및 1인 가구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정책 의견

1인 가구 이용자가 기대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 1순위로 17명(48.6%)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10명(28.6%)이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인 가구 이용자들은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정보센터라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부합하도록 이용자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주는 것을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표 20〉과 같이 나타났다.

〈표 20〉 1인 가구 이용자가 기대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항목	빈도(명) / 비율(%)	
	1순위	2순위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	17 / 48.6	1 / 2.9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 8.6	10 / 28.6
교양 측면의 평생교육	3 / 8.6	6 / 17.1
자격증 획득 등 실질적 취·창업 지원	1 / 2.9	2 / 5.7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3 / 8.6	3 / 8.6
지역사회 교류와 이해를 위한 공간	4 / 11.4	1 / 2.9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	2 / 5.7	3 / 8.6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활용교육 공간	1 / 2.9	2 / 5.7
친목과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공간	1 / 2.9	3 / 8.6
체험과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간	-	3 / 8.6
치매예방,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 공간	-	1 / 2.9
합계	35 / 100.0	35 / 100.0

1인 가구 이용자가 생각하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에서 1순위로 12명(34.3%)이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장서의 양적 증대'를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6명(17.1%)이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5명(14.3%)이 '도서관 이용시간 등 운영방법 개선' 정책이 각각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인 가구 이용자들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를 위해 계층별 맞춤형 장서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정책과 탄력적인 도서관 이용시간 등 편리한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21〉과 같이 나타났다.

〈표 21〉 공공도서관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

항목	빈도(명) / 비율(%)	
	1순위	2순위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장서의 양적 증대	12 / 34.3	1 / 2.9
도서관 자료의 주제 다양화	4 / 11.4	6 / 17.1
도서관 시설 등 환경 개선	6 / 17.1	4 / 11.4
도서관 이용시간 등 운영방법 개선	5 / 14.3	5 / 14.3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제공 지원	2 / 5.7	3 / 8.6
중대형 규모의 도서관 확충	1 / 2.9	3 / 8.6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사업	1 / 2.9	4 / 11.4
정보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강화	1 / 2.9	2 / 5.7
여가 향유를 위한 생활 문화강좌 제공 지원	1 / 2.9	-
관계개선을 위한 모임활동 지원사업	2 / 5.7	-
각 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강화	-	2 / 5.7
작은 규모의 도서관 확충	-	4 / 11.4
기타	-	1 / 2.9
합계	35 / 100.0	35 / 100.0

2. 전문가 FGI 조사

가. 도서관 사서 실무자 그룹

FGI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사서 6명으로 선정하였다.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들을 패널로 선정함으로써 실무를 대표할 일반적인 속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FGI 조사를 위한 면담 문항은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분석, 향후 서비스 방향 제안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실무자 2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진행하였고 응답을 받은 뒤 문항을 오해했거나 잘못 기재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여 문항을 〈표 2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2〉 사서 실무 전문가 그룹: 인터뷰 질문 및 내용

단계	질문 항목	질문 내용	No
시작 단계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타 기관과의 비교	-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추진 경험과 의견	Q1
		-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타 기관의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차이에 대한 인식	Q2
이행 및 핵심단계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	만족 -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분야와 유지해야 할 분야	Q3
		애로사항 -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추진의 문제점	Q4
		개선과제 -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이유	Q5
		차별화 전략 -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추진에 있어 차별화해 나가야 할 분야와 전략	Q6
종결 단계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추진방향	-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직방향	Q7
		-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	Q8

FGI 자료는 녹취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자료의 단위화 및 범주화의 원칙을 사용하여 향후 도서관 서비스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래 〈표 23〉은

도서관 사서 실무자 그룹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23〉 도서관 사서 실무자 그룹: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와 요약

면담 내용	요약
Q1.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추진 경험과 및 의견 - 현재는 도서관 내 사회다원화인들을 위한 도서관 장비 배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참여자 A) - 고령층이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수 운영 중이나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적은 것으로 확인됨(참여자 F) - 사회다원화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확대해야 함(참여자 D)	다른 사회다원화 요소에 비해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필요성은 인지함
Q2.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타 기관의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차이에 대한 인식 - 도서관은 서비스 대상에 제한이 없는 보편성이 있고 서비스 수혜를 위해 스스로 찾아온다는 특징이 있음(참여자 E) - 책을 매개로 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보자료의 연결, 장소 제공 등에서 다른 기관과의 차이를 보임(참여자 D) - 도서관은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 교류가 미흡하고 자발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참여자 B) - 다문화관련 기관에서는 생활복지 서비스에 도서관은 문화복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함(참여자 A) -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함(참여자 E)	도서관은 모두가 이용 가능한 점이 장점이나 비자발적 이용자, 특정계층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음. 책을 매개로 하는 정보,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하고 타기관과 연계한 서비스가 가능한 곳임
Q3.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분야와 유지해야 할 분야 - 고령자를 위한 수감료 감면, 공간 수용이 필요하며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참여자 F) - 1인 가구는 소속감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참여자 A) - 지역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열린 공간을 구성하여 사회적 학습공유공간을 구성하고,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참여자 F)	세대와 계층을 통합 하는 서비스, 1인 가구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있어야 함
Q4.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추진의 문제점 -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원화 서비스 강사인력이 부족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움(참여자 A) - 다원화 서비스를 운영할 도서관 인력이 부족하고 사서 재교육과 정보도 부족함(참여자 D) -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구실점이 없고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함(참여자 B) - 기존 도서관 공간과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오래된 이용자들의 존재가 새로운 계층의 참가자에게 진입장벽이 되기도 함(참여자 F) -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모집을 위한 창구가 필요함(참여자 B)	현재는 1인 가구 서비스를 위한 정보, 조직과 인력, 시설, 프로그램, 예산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함
Q5.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이유 - 종합적 계획이나 체계적인 장서 개발 계획,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참여자 B) - 공모사업 중심의 단년도 사업으로 직원의 피로도는 증가하고 사업 지속성은 결여되므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전문기구가 필요함(참여자 E) - 1인 가구를 위한 광범위한 수요조사와 다른 기관 서비스와의 접점을 찾아서 연계해야 함(참여자 D) - 1인 가구가 참여가능한 독서회, 야간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함(참여자 F)	1인 가구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기구, 연계방안이 필요함
Q6.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추진에 있어 차별화해 나가야 할 분야와 전략 - 일상생활정보, 경제지식 등을 도서관 정보자료를 활용해서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서비스(참여자 A) - 모든 세대의 이용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역할(참여자 C) -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회다원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참여자 D) -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다원화 이용자들이 문화 수혜자이자 기획자로서 참여하는 기회 제공(참여자 B)	도서관 장서와 연계한 1인 가구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층 통합의 서비스와 특수성을 살린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
Q7.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직방향 - 유기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함(참여자 D) - 5개 서울도서관 분관의 R&D 그룹 설정하여 운영하거나 서울시 공공도서관 협의회를 구성함(참여자 E) - 자치구 단위의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함(참여자 B)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권역별로 시행해야 함
Q8.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 - 독서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 서비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참여자 A)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함(참여자 D) - 수치·정량적인 평가가 아닌 질적·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해야 함(참여자 E) - 사회다원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참여자 F) - 사회 변화와 지역 특성의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야 함(참여자 F) - 사회다원화의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참여자 F)	책과 정보기반 서비스, 인력과 예산, 시설과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서울시 각 지역의 1인 가구 특성과 수요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

나. 학계 전문가 그룹

도서관 사서 실무자 그룹과는 달리 학계 전문가 그룹의 FGI 조사는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다원화 환경과 공공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다원화에 따른 도서관 내부환경과 발전방향을 위해 문헌정보학 전문가 2인과 도서관 외부환경과 1인 가구를 위한 다른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고찰하기 위해 사회복지학, 아동가족학 및 행정학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였다. 질문내용과 FGI 자료의 분석은 도서관 사서 실무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상세한 FGI 조사 결과는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학계 전문가 그룹: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와 요약

면담 내용	요약
Q1. 기존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다원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획이 부족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과 접근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사회다원화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의 정착이 필요함(사회복지학 전문가) -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풍부하게 하고 있으나 아직 세세한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현재 도서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원화 이용자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않았음
Q2. 서울시 공공도서관과 타 기관의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차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들은 문화복지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관과 도서관의 차별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음(아동가족학 전문가) - 사회다원화 인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하므로 타기관 및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 공공도서관은 늘 사회다원화 이용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아웃리치 서비스를 확대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도서관이 문화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서관만의 다원화 서비스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Q3.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중 만족도가 높은 분야와 유지해야 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 확대(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사회복지학 전문가) - 도서관법을 기반으로 사회다원화 이용자 서비스를 개발하여 타 기관보다 관련 지원이 풍부(문헌정보학 전문가 B)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자료, 공간 프로그램, 타기관 연계에 있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
Q4.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추진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 주변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 기획이 필요함(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사회다원화 이용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도서관 설계 및 정보자원이 필요함(사회복지학 전문가) - 사회다원화 서비스는 같은 사회다원화 자원봉사, 파트타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함(행정학 전문가) - 이들이 직접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파트타임 등으로 활동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도서관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공헌할 수 있음(행정학 전문가) -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형성과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원화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이들이 수혜자를 넘어서 참여할 방안이 있어야 함. 지금보다 실효성있는 외부기관 협력을 해야 함
Q5.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방법을 통한 이용자 연구를 통해 이용자 집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사회다원화인들이 서비스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함(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자료실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간과 매체, 접근성이 높은 도서관이 필요함(아동가족학 전문가) - 생산에 중사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야간 및 주말 서비스가 필요함(행정학 전문가) - 타 기관과 연계한 사회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의 모색이 필요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사회다원화 이용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야 함.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1인 가구에 친화적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야 함

면담 내용	요약
Q6.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추진에 있어 차별화해 나아가 할 분야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이용자 집단을 위한 정보 게이트웨이 역할(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지역사회의 지식정보 보급을 위한 큐레이션 기능(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사회다원화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 공간 및 자료(아동가족학 전문가) - 1인 가구를 위한 문화 공간 및 교류의 장(아동가족학 전문가) - 고령자나 1인 가구는 지역적인 특징 없이 동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문화서비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함(행정학 전문가) - 사회다원화 이용자 서비스는 기관 연계와 개별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로 이원화하는 것이 적절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p>지역에서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위해 정보와 만남이 가능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한 서비스와 1인 가구 전문 사업기관과 연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p>
Q7.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도서관 정책기능을 강화할 때 부서화 설계보다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므로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행정학 전문가) - 정책의 집행과 분리가 필요함(중앙은 서울시 전체 문화정책과 맞추고 분관은 실질적인 서비스 수행)(행정학 전문가) - 서울시 분관도서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해야 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p>다원화 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이원화하여 서울시 분관도서관을 활용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식의 다양화도 필요함</p>
Q8.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와 이용자 집단별 요구를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문헌정보학 전문가 A) - 지역 내 타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단이 필요함(문헌정보학 전문가 B) - 사회다원화 이용자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포용도서관'이 필요함(아동가족학 전문가) - 도서관의 목표를 단순 정보격차 해소에서 벗어나 사회참여 및 시민역량 강화 등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함(행정학 전문가) 	<p>다원화 집단에 대한 충분한 연구 포용도서관을 위한 노력, 정보격차해소를 넘어선 도서관 역할을 수행해야 함</p>

V.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제시

본 장에서는 앞선 선행연구에서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도가 다인 가구와 비교해 낮고, 1인 가구가 집단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이들이 공동으로 겪는 보편적인 어려움과 함께 연령대별로 상이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앞장에서 서술한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현황과 국내외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내용 분석 결과,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

1인 가구 대상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은 크게 정보자원, 인적자원, 시설인프라, 서비스 및 프로그램 4가지 측면에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정보자원 운영방안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독서 및 도서대출'이므로 1인 가구를 위해서도 연령별, 계층별, 관심사별로 인쇄 및 디지털 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 1인 가구에게 예방적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들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정보자원을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도서관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디지털 정보가 주요 매체가 되고 있으므로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자료 자체는 물론이고, 이용을 위한 전용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디지털 자료는 각종 기기나 플랫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기 이용이나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한 1인 가구에게 또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C와 스마트폰에 이어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주체적인 접근, 비판적인 이해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읽고 쓰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나. 인적자원 운영방안

(1) 서울도서관에 '정보취약계층 지원센터' 설립

취약한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서울시 지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립해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 개발과 연계 서비스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서관 비전과 전략 연구를 추진하여 1인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과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프로그램이 자치구 단위도서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단계별 도입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서울시 전체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서울도서관-분관도서관-자치구 중앙도서관-자치구 공공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서울도서관은 단위도서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과 서비스 개발, 장서·시설·인력교육을 맡고 유관 정부부처와 민간의 협력과 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추가로, 도서관 운영평가에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항목에 1인 가구를 포함시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2) 자치구 도서관의 정보불평등 해소 기능 수행

자치구에서 중앙관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에 설치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정보불평등 해소 역할을 추가해야 한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이다. 운영위원회에 각 자치구의 정보불평등 해소에 대한 역할을 추가하여 1인 가구를 위한 독서환경과 도서관 서비스를 제도화할 수 있다. 중앙관을

중심으로 단위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판과 서점, 독서단체, 시민단체 등 독서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1인 가구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다. 시설인프라 운영방안

서울의 공공도서관들도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위한 독서활동, 문화강좌, 회의와 모임, 행사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불편함이 없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기 위해 인문, 문화, 예술, 체험 등 개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간의 복합화를 추구해야 한다.

문화적 상상력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창조공간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도서관 내에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창의·상상공간 조성이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의 방안이자 1인 가구를 위한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김수정,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습득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장소에서 각종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실험과 교육, AR/VR 체험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 교육을 진행하면 기존에 정보를 습득하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창조하는 공간으로 변신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공도서관들이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실, 다문화자료실, 큰글자도서 좌석과 같은 공간분리 정책을 실시하는 곳이 많은데 당초에는 취약계층의 이용 편리를 위해 제안되었으나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시민과 분리되어 또 다른 격리를 심화시킬 수가 있다. 누구나 서울의 공공도서관을 평등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설 이용이 더 어려운 취약한 1인 가구를 포함한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자료실은 물론 휴식공간도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개인학습 대신 다양한 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도서관의 정보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취약한' 1인 가구를 정보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여 신규 서비스를 설계하고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과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 취약한 1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인 경제, 주거, 생활, 건강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을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공공도서관이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지리적으로 거대한 서울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 권역별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울시의 '2030 서울생활권 계획'의 생활권역 구분 및 향후 건립될 서울도서관 분관을 근거로 권역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도 지역마다 1인 가구의 현황과 요구사항, 인구통계가 다양한데 2017년 '서울서베이' 조사에 의하면 관악구가 44.9%, 중구 37.8%, 종로구 37.5%로 1인 가구 밀집도가 높고 도봉구 22%, 양천구가 2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권역의 지역 특성,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인구통계,

주거·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여가시간과 활동, 노후준비 상태, 원가족과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요구 등)에 부합하는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특화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권역별로 가장 많은 유형의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이 효과를 극대화하므로 관악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가 속한 서남권, 도심권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존에 정보취약계층 서비스를 차별화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면 1인 가구 프로그램의 매뉴얼화나 브랜드화도 가능할 것이다.

점차 심화되는 정보격차는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 전이되면서 정보격차 자체를 다시 확대 생산하고 있다. 정보격차의 취약정도와 대상에 따라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약정도에 따라서는 도서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핵심계층과, 당장 두드러진 문제는 없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유의관심계층, 일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1인 가구 생활을 하고 있어 문제유발 가능성은 적으나 공공서비스의 혜택과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제도보완계층으로 나눌 수도 있다. 대상별로는 청년층은 주거와 정신건강, 중장년층은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 노인층은 경제와 건강, 사회적 단절 완화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이 유용할 것이다. 주제별로는 자기돌봄, 공동체와 소통, 지역특성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집단별로 차별화된 욕구를 찾아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1인 가구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시

1인 가구 내에서도 연령과 성별, 신체적 상태, 경제적 여건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이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는 상이하므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서비스는 특히나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축적한 역량과 서비스를 활용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는 사회적 활동지원, 사회적 유대, 돌봄, 봉사활동, 여가 및 문화활동으로 보고, 본 절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에 노인 1인 가구를 제외한 청년, 중장년,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대비 프로그램

(1) 운영목표

1인 가구가 생애주기에서 과도기적 단계인 청년층을 위해서는 그들이 다음 인생단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 건강행태 개선, 양질의 취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전지대로 옮겨 가도록 지원한다.

(2) 운영내용

아래 <표 25>와 같이 경제활동과 주거, 사회활동과 정신건강, 여가와 일상생활로 구분하고 청년

층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정신건강 대응 프로그램을 주제로 특화할 수 있다.

〈표 25〉 청년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대상	분야	내용
청년층	경제활동과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주거정보 서비스 제공 맞춤형 일자리정보 서비스 제공 안전한 지역 만들기 소통 공동체 구축
	사회활동과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를 고려한 1인 가구 단계에 대한 이해 교육 가족다양성과 가족형성 변화에 대한 교육 사회적관계 형성 프로그램 정신건강 대응 프로그램
	여가와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식생활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별 및 혼족 맞춤형 여가활동 프로그램

나.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1) 운영목표

기존의 1인 가구 정책이 독거노인에 집중하는 동안에 30대 후반부터 40-50대는 가족해체, 실직, 기러기 부부 등의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혜택은 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면 독거노인들이 직면하는 노인빈곤, 건강과 주거문제를 답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위험이 크므로(김석호, 2018)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2) 운영내용

경제활동과 주거, 사회활동과 정신건강, 여가와 일상생활로 구분해서 아래 〈표 26〉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준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족해체로 인한 홀로서기, 사회적 관계형성, 관계재생 프로그램을 주제로 특화할 수 있다.

〈표 26〉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대상	분야	내용
중장년층	경제활동과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교육 등의 노후준비 교육 중장년을 위한 주택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사회활동과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마음안심 지원 프로그램 관계재생 프로그램
	여가와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후반기 진입을 위한 준비 교육 영양관리 프로그램 자기돌봄 프로그램

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1) 운영목표

여성 1인 가구는 경제적 소득 활동에 있어서도 열등한 상황에 있고 남성과는 다른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 연령대의 여성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경제적 불안, 방법과 안전, 외로움을 토로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기대감도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므로(김석호, 2018) 보다 섬세한 서비스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2) 운영내용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도 경제활동과 주거, 사회활동과 정신건강, 여가와 일상생활로 구분해서 아래 <표 27>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되 취업을 위한 자격증과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역내 여성가주간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표 27> 여성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대상	분야	내용
여성층	경제활동과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및 취업관련 기술 교육 • 주택관련 법·제도 정보 서비스 제공 •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사회활동과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1인 가구간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여가와 일상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 • 건강관리 프로그램 • 여성 관광객 맞춤 여가활동 프로그램

VI.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라 고령자,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자 집단으로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와 정책이 연구된 사례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주된 가족 구성단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방안을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의 1인 가구 대상 공공서비스 현황, 국내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서비스 및 해외 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운영내용을 조사·분석하였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가 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청년층부터 고령층, 여성과 남성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의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국내 공공도서관이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논의와 서비스를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바탕으로 1인 가구 대상 서비스의 방향 수립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도서관정책과 서비스도 1인 가구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는 확인되지 않았고 전체 시민 대상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서관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배려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도 보편성과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둘째,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관계자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인 가구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의 주된 이용 목적은 '도서 대출 및 독서를 위해'라고 응답하였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회원증, 좌석발급 등 이용절차가 간편'과 '도서관에 있는 자료의 검색이 편리' 등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평생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꼽았고, 1인 가구 이용자가 기대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는 1순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1순위로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장서의 양적 증대'를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도서관 사회다원화 서비스 담당 사서 등 실무자 집단, 문헌정보학 교수,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FGI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무자 그룹은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서비스 필요성을 인지하여 세대와 계층을 통합하는 서비스와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현재는 1인 가구 서비스를 위한 정보, 조직과 인력, 시설, 프로그램, 예산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기구와 조직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계 전문가 그룹은 공공도서관이 다른 기관 대비 자료,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지역의 타기관 연계에 있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1인 가구 대상 서비스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실효성있는 서비스를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이 꼭 필요하며,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이원화하여 서울시 분관도서관, 자치구 도서관들이 다양하게 협력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서울시 공공서비스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 및 FGI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시된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 방향은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인 가구의 삶과 밀착된 정보자원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서비스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치

구 도서관과 함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료 중심 도서관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포함한 '이용자 중심'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1인 가구의 특성과 분포에 따른 권역별 특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는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활동지원, 사회적 유대, 돌봄, 봉사활동, 여가 및 문화활동 분야가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축적한 역량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년, 중장년,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특화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문헌정보학 학문 영역의 이용자 대상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는 수행되었으나 1인 가구는 그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 집단이기에 본 연구가 1인 가구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연구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미흡했던 1인 가구 대상 도서관 서비스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후속 연구와 함께 1인 가구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다원화 현상 요인 및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국회도서관 (2018). 1인 가구 전성시대. 서울: 국회도서관.
- 김석호 외 (2018). 인구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수정 (2019).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담당자의 운영경험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249-272.
- 김연옥 (2016).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52, 133-166.
- 김영정 (2016).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 시간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여성재단.
-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5, 62-79.
- 김은하, 이태문 (2015). 2015년도 해외 주요국의 독서실태 및 독서문화진흥정책 사례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2), 101-141.
- 문정희 외 (2017). 부산지역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미선 외 (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변미리 외 (2019). 성남시 1인 가구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경기: 성남시.

-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출처: <https://lib.seoul.go.kr/>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18). 2018 서울가족특성화 연구보고서 - 서울지역 1인 가구 현황 분석에 따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서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020). 2020 서울가족보고서, 희망서울 행복가족.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2030 서울생활권 계획. 출처: <https://planning.seoul.go.kr/plan/map/getPlanMap.do>
- 이민홍 외 (2015).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사회적 위험 대응전략. 세종: 보건복지부.
- 이복실 (2011).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원화 사회에 대응한 가족정책의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포럼, 175, 2-3.
- 이여봉 (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 64-77.
- 장진희 외 (2017).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순희 (2019).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겨울호(1), 37-49.
- 조경순 외 (2019). 한국어 가족어휘에 반영된 가족관 변화 연구 - 남한·북한·연변의 가족어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34, 5-36.
- 최셋별 (2014).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2), 1-24.
-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90
- 홍승아 외 (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마련.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yun, Mi-Ri et al. (2019). Fact-finding Survey to Establish Policies for One Person Households in Seongnam-City. Gyeonggi-do: Seongnam City.
- Choi, Saet-Byul (201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of one person households: focusing on comparison with multi person household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2(2), 1-24.
- Hong, Seung-Ah et al. (2017). Preparation of Measures to Respond to Family Policies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One Person Household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Jang, Jin-Hee et al. (2017). Research Service for the Fact-Finding of One-Person Households Living in Seoul and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 Jeong, Soon-Hee (2019). Policy trends related to one person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Winter Issue 1, 37-49.
- Jo, Kyung-Soon et al. (2019). A study on changes in family view reflected in Korean family vocabulary: focused on comparison of family vocabulary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Yanbian.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4, 5-36.
- Kim, Eun-Ha & Lee, Tae-Moon (2015). A Case Study of Reading Policies and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i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in 2015. Sejong Cit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im, Hye-Kyung (2013). Failure of patriarchal familism?: familyism and individualization of the generation in the IMF economic crisis. *Journal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47(2), 101-141.
- Kim, Seok-Ho et al. (2018). A Study on One Person Households Current Status by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Policy Response.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Kim, Soo-Jung (2019). A study on operational experience of public library makerspace manag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249-272.
- Kim, Yeon-Og (2016). The advent of the era of one person households: characteristics and living conditions. *Journal of Korean Family Welfare*, 52, 133-166.
- Kim, Yoo-Kyung (2016). Characteristics of family support and policy task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support environment. *Journal of Health and Welfare Forum*, 235, 62-79.
- Kim, Young-Jung (2016). A Study on Lives of Women in One Person Households in Seoul: 6080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Support Measures: Focusing on Time Utilization.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 Lee, Bok-Sil (2011). A new solution to family policy in response to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a diversified society is needed. *Journal of Health and Welfare Forum*, 175, 2-3.
- Lee, Min-Hong et al. (2015). New Social Risk Response Strategy due to the Increase in One Person Households. Sejong C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Lee, Yeo-Bong (2017). Current status of one person households and policy tasks. *Journal of Health and Welfare Forum*, 252, 64-77.
- Mun, Jeong-Hui et al. (2017). Comprehensive Policy Research on the Increase of One Person

Households in Pusan. Pusan: P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National Assembly Library (2018). The Golden Age of One Person Households.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Park, Mi-Sun et al. (2017). A Study on Housing Policy Responses to the Increase in One Person Households. Sejong Cit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Seoul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2018). 2018 Seoul Family Specialization Research Report: Development of Family Support Program Based o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Single - person Households in Seoul. Seoul: Seoul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Seoul Health Family Support Center (2020). 2020 Seoul Family Report, Hope Seoul Happy Family. Seoul: Seoul Metropolitan City.

Seoul Metropolitan City. 2030 Seoul Living Area Plan. Available: <https://planning.seoul.go.kr/plan/map/getPlanMap.do>

Seoul Metropolitan Library. Homepage. Available: <https://lib.seoul.go.kr/>

Seoul Women & Family Policy Affairs Office (2019). Basic Plan to Support One Person Households in Seoul. Seoul: Seoul Metropolitan City.

Statistics Korea. 2019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vailable: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90